정찬주 장편역사소설

못다 부른 명량의 노래

(강진의 명장, 김억추 장수 이야기)

강 진 군
【문화예술과】

평양성 탈환

조선관군의 공격을 받은 왜군은 성문을 나오더라도 순안관아에는 미치지 못했다. 순안에 사는 양민들은 피난을 떠나지 않고 가을걷이를 한 뒤 근근이 겨우살이에 들어갔다. 양민들은 왜군의 노략질만 없어도 생지옥에서 벗어난 듯했다. 이는 모두 도원수 김명원의 관군이 평양성의 왜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끔 묶어놓았기 때문이었다.

12월 중순.

명나라 원군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오고 있다는 기별이 왔다. 이번에는 5만여 명의 대군이었다. 이조판서 이산보는 눈물을 흘렸다. 며칠 전에 요동으로 건너가 명나라 병부시랑 송응창에게 속히 진군해 줄 것을 극력 간청했는데 이제야 오고 있었던 것이다.

명나라 군사 총대장은 이여송 제독이었다. 이여송은 홍명교(紅明轎)라 불리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오는 중이었다. 가마는 여러 개의 붉은 홍등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이여송은 체구가 커 가마 안이 비좁았다. 이여송은 압록강 중류쯤에서 가마를 멈추게 했다. 압록강이 흐르는 강계의 이산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땅이었다. 할아버지가 사람을 죽이고 요동 철령위로 도망쳐 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것은 알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이미 명나라의 당당한 장수들이었다.

이여송은 다시 홍명교에 탔다. 홍명교 뒤쪽에는 군량미 8만석과 화약 2만근을 실은 수레부대가 바짝 뒤따랐다. 선조와 행재소 대신들은 용만관에서 이여송 제독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선조는 객사 호상에서 내려와 발을 동동 굴렀다.

홍명교가 더디게 오고 있었던 것이다. 유근이 아뢰었다.

"전하, 명나라 이여송 제독은 곧 이곳에 당도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기다리시옵소서."

"어찌 진군이 이리 늦다는 말인가. 설번이 돌아간 지 언제이던가."

"설번은 고마운 은인이옵니다. 따지고 보면 그의 노력으로 명 원군이 오고 있는 것이옵니다."

"평양에 있는 행장이 독하지 않은가."

설번이 군사 10만 명을 보내주겠다는 명나라 만력제 신종의 칙서를 들고 왔다가 전해주고 간 지 벌써 석 달째였다.

그 동안에 명나라 사신 심유경이 평양에 들어가 왜장 고니시와 협상을 벌였지만 왜의 철군은 이뤄지지 않았고, 선조는 급히 정곤수를 연경으로 보내 원군을 요청했지만 별 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심유경이나 설번의 외교는 조선보다 자국인 명나라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 설번이 명나라 황제인 만력제에게 올린 글도 그랬다. 명나라의 이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신이 깊이 근심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우리 명나라의 국경이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지(本土)가 진동할 것을 두려워함이옵니다. 이에 피치 못할 시세를 헤아려서 황제께 진술하옵니다. 무릇 요동진은 연경의 팔과 같은 곳이요, 조선은 요동진의 울타리 같은 곳이옵니다. 영평은 국도(國都)를 보호하는 중요한 땅이요, 천진은 또 연경의 문정(門庭)이옵니다. 2백 년 동안 복건성과 절강성은 항상 왜놈의 화를 입어왔으나 요양과 천진에 왜구가 없었던 것은 조선이 울타리처럼 막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압록강에는 비록 세 길이 있으나, 서쪽에 가까운 두 길은 물이 얕고 강이 좁아서 말이 뛰어 건널 만하고 또 한 길은 동서의 거리가 활을 두 번 쏠 거리가 채 못 되니, 어찌 거기를 거점

으로 해서 적을 막고 지킬 수 있겠사옵니까? 만일 왜놈들로 하여금 조선을 점거하게 한다면 요양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을 것이옵니다.(하략)>

마침내 명나라 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용만관에 도착했다. 선조는 용만관 마당으로 나와 이여송을 맞이했다.

"과인이 나라를 잘못 지켜 황제께 염려를 끼쳐드리고, 여러 대인께서 멀리 정벌하러 오시게 하였으니 비록 심복(心腹)을 쪼갠들 어찌 이 하늘같고 땅 같은 망극한 은혜를 갚을 수 있겠소?"

"황제의 하늘같은 위엄과 이 나라 임금의 큰 복으로 마땅히 왜적은 저절로 섬멸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이여송의 태도는 도도하면서도 공손했다. 그가 입은 붉은 비단의 전포가 눈부실 정도로 번들거렸다.

"우리나라 한 오라기의 명맥이 오직 대인에게 달려 있소."

"과찬이십니다."

이여송은 선조의 말이 과분하다며 두 손을 휘휘 저었다. 그러더니 큰 배에서 나오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황제의 명령을 받았으니 어찌 죽음을 사양하겠습니까? 또한 나의 조상은 본래 귀국 사람이었고. 요동에서 나올 때 나의 아버지 또한 훈계하시었는데 내 어찌 귀국의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도독께서 오시니 갑자기 눈보라가 멈추고 하늘에 흰 무지개와 햇무리까지 출현하는 기적이 일어났소.”

“이런 상서로운 기적을 데리고 온 장수들과 함께 봐야겠습니다.”

이여송은 용만관을 나가자마자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두 팔을 번쩍 들더니 장수들 앞에서 호탕하게 웃으며 기뻐했다. 선조는 이여송에 이어서 용만관 밖에 있는 부총병 양원, 사대수, 임자강, 장세작 등을 찾아가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날이 너무 쌀쌀하여 모든 장수들을 만나지는 못했다.

그러자 선조를 만나지 못한 명나라 장수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할 수 없이 한밤중에 유근이 이여송을 찾아가 날이 새면 그들을 위로하겠다고 말하여 무마했다.

그러나 이여송은 선조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인 꼭두새벽에 대군을 이끌고 평양으로 진군하도록 명했다.

한편, 도체찰사 유성룡은 순안 관아에 있다가 부랴부랴 이여송을 영접하기 위해 안주 청천강 강변으로 올라갔다. 유성룡은 이여송을 정중하게 안주 동헌으로 안내했다. 그런 뒤 소매 속에서 평양의 지도를 꺼내 이여송에게 주면서 성안의 형세와 군사의 공격지점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여송은 유성룡이 설명하는 동안 주필(朱筆)로 그곳들을 표시했다. 이여송은 자신만만했다.

"왜군은 오직 조총만을 믿고 있지만 유리는 포탄이 오륙 리나 나가는 대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들이 어찌 우리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여송은 안주로 돌아와 작전을 구상했다. 먼저 고니시를 사로잡는 계책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고니시와 협상했던 심유경이 순안에 도착해서 화친을 허락한 황제의 친서를 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고니시는 반신반의했다. 황제의 친서이니 자신이 직접 순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고니시는 장수 다케우치 기치베와 20여 명의 왜병을 보냈다.

부총병 사대수는 그들에게 술을 주어 접대하는 척하다가 매복한 군사를 시켜 다케우치 기치베를 사로잡고 왜병을 거의 다 죽여 버렸다. 왜병 3명이 겨우 살아남아 평양으로 돌아가 명나라 군사가 온 것을 알리니 그제야 왜군이 크게 동요했다. 이때 명나라 대군은 숙천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숙천에서 순안, 평양까지는 지척의 거리였다.

이번 평양성 공격에 있어서 조선관군의 총사령관은 도체찰사 유성룡이었다. 지난번 8월 공격 때는 도원수 김명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유성룡이 이여송의 지휘를 받으면서 조선관군을 거느렸다. 유성룡은 수군대장 김억추에게 지난번 공격 때와 같이 대동강 입구를 점거하라는 공문을 미리 보냈다. 공문을 가지고 간 사람은 강서 출신 군졸 김순량이었다.

유성룡은 김순량 상관인 자신의 군관 성남에게 물었다.

"김억추에게 보낸 공문은 왜 아직도 가져오지 않는가?"

"김순량에게 시켰음메다. 순량을 데려 오갔습네다."

유성룡이 김억추에게 보낸 것은 대동강 하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할 때 나서도록 지시한 비밀공문이었다.

그런데 비밀공문은 지휘체계가 허술한 부대에서는 종종 도중에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그런 예가 빈번해지자 장수들은 자신이 보낸 공문을 반드시 되가져오게 했다. 성남이 김순량을 데려오자 유성룡이 물었다.

“공문이 어디 있느냐?”

“김억추 장수님께 드리고 왔시다.”

“다시 가지고 오라 하지 않았더냐?”

“그 지시까지는 듣지 못했시다.”

군관 성남이 유성룡을 대신해서 다그쳤다.

“이놈! 내가 6일 안으로 가져오라 하지 않았네? 어서 날레 바로 불라우!”

“이곳이 어데라고 거짓말을 하갔습네까요.”

“니놈이 나를 속이고 무사할 줄 아네?”

결국 김순량은 엉덩이가 물러터질 때까지 곤장을 맞다가 실토하고는 처형됐다. 김순량은 왜장과 관군 사이를 오고간 적의 첩자, 적첩(敵諜)이었던 것이다.

다음날 새벽.

순안 관아에는 조선관군 장수들이 모여들었다.

유성룡은 총사령관이나 마찬가지였다. 도원수 김명원, 순변사 이일, 평안도 순찰사 이원익, 평안도 방어사 김응서, 황해도 방어사 이시언과 조방장 김경로, 군관 강덕관, 승장 청허와 유정 등이었다. 이윽고 유성룡이 말했다.

"조명연합군이 오늘 평양성을 포위할 것이오. 우리 관군은 이여송 제독의 지시에 따라 공격할 것이니 군율을 어기지 마시오."

"우리에게 작전권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소."

조선관군 총대장인 도원수 김명원은 수염이 떨릴 만큼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다른 장수들도 불만스러운 얼굴을 했다. 그러자 74세의 노승 청허가 입을 열었다.

"빈도가 한 마디 해도 되갔습네까?"

"그러시오."

"작전권이 우리에게 있다믄 더 좋갔지요. 명군을 손님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양보하는 것도 미덕일 것입네다. 허나 우리의 장점은 평양성의 지세를 환히 꿰뚫고 있는 거 아닙네까? 싸움은 우리가 저절로 주도할 것입네다."

유성룡이 물었다.

“대사에게 묻겠소. 어디부터 공격해야 평양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소?”

“어데라기보다는 가장 높은 데를 먼저 차지해야 하지 않갔습네까?”

“옳은 말이오.”

“빈도의 승군은 모란봉을 공격하는 연습만 해왔습네다. 그러니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주면 좋갔습네다.”

“제독께 말씀하리다.”

유성룡이 또 말했다.

“이여송 제독의 작전은 이렇소. 명군의 주력부대와 포병부대는 평양성 북쪽의 보통문과 칠성문, 현무문을 칠 것이오. 또 명군의 다른 부대는 평양성 남쪽 대동강에서 함무문을 공격할 것이오. 우리 관군 주력은 대동강 양각도 쪽에서 명군에 편입될 것이오. 김억추의 수군은 대동강 입구에서 왜군이 강을 타고 도망치지 못하게 틀어막고 있을 것이오.”

청허의 제자 유정도 물었다.

“승군은 모란봉 공격부대에 합류하면 되겠십니꺼?”

“청허 대사가 요청하니 그렇게 하시오. 명군 장수 오유충과 사대수 부대 뒤를 따르시오.”

순안 관아 밖에는 각 진에서 차출한 8천명의 관군이 도열해 있었다. 김명원은 즉시 이일과 김응서의 부대를 대동강 양각도 쪽으로 이동시켰다. 함구문을 공격하는 낙상지의 명군에 합류시키기 위해서였다. 남은 관군은 이여송에게 보내고 김억추의 수군은 이미 대동강 하구에 내려가 있으니 따로 지시할 필요는 없었다.

어느 새 이여송이 기병 1백여 명을 거느리고 성 아래로 다가가 소리쳤다.

“항복하라! 백기를 올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왜군의 백기는 올라가지 않았다. 이여송이 본진으로 돌아와 화포를 쏘며 공격개시를 알렸다. 명군의 포병부대가 성 안으로 포탄을 날렸다. 조선관군도 화포로 철환을 쏘았다. 성 안의 참나무들이 불탔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솔숲으로 번졌고 연기는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래도 왜군은 수성전으로 버텼다. 그 사이에 명군 포병부대는 평양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모란봉을 공격했다. 3천여 명의 승군이 어느 순간 앞장섰다.

모란봉에서는 왜군의 별 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다. 왜군이 내성과 중성 방어를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청허는 모란봉의 상봉인 무봉에, 유정은 문봉에 올랐다.

명군 포병부대는 왜군이 수성하고 있는 내성과 중성을 향하게 대포들을 거치했다. 이후 이여송의 지시를 받은 포병부대는 대포를 밤새 쏘아댔다. 성 안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대포공격에 고니시는 결국 전의를 상실해버렸다. 휘하의 수많은 부하들이 명군의 대포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밤을 새는 동안 사상자가 몇 백 명이나 발생했다.

이여송은 모란봉 무봉을 전투지휘소로 삼았다. 싸움은 이틀간의 공방전 끝에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조명연합군 쪽으로 기울었다. 이여송이 유성룡에게 말했다.

“대동강 남쪽 요로에 이녕과 조승훈 부대를 매복 배치해 두었소. 도망가는 왜적을 사살할 것이오.”

“조선도 황해도 방어사 이시언과 조방장 김경로를 중화로 보내 퇴각하는 왜적을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소이다. 명군 부대를 돕겠습니다.

왜적이 대동강으로 타고 도망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김억추의 수군이 대동강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병들끼리 전공 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잠시 후, 이여송의 참모장 이응시가 명군 장수 장대선을 데리고 왔다. 고니시에게 이여송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절강성 사람으로 왜군에게 항복했지만 명군에게 다시 붙잡혀 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이었다. 이여송이 말했다.

“행장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우리 명군은 왜군을 모조리 죽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목숨을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살길을 내줄 것이니 속히 물러가라고 전하라.”

“제독 나리, 살려만 주신다면 무슨 일인들 받들지 못하겠습니까?”

장대선은 바로 연광정 토굴로 가서 고니시에게 전했다. 그러자 고니시는 반색하며 말했다.

“반드시 물러갈 터이니 뒷길을 끊지 말라고 전하라.”

퇴각과 전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서 왜장 고니시에게는 희소식이었다.

고니시는 이여송이 허락한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은 몇 천 명의 군사라도 대동강 물이 얼어 있으므로 배를 타지 않고도 신속하게 퇴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여송은 장대선을 다시 왜장 고니시에게 보냈다.

"내성의 남쪽 장경문과 중성의 남쪽 대동문을 열어줄 터이니 무기와 군마는 놔두고 밤중에 몸만 빠져나가라고 전하라."

이여송은 약속대로 대동문과 장경문을 열어주었다. 두 문을 나서면 바로 대동강이었다. 왜군은 소리 없이 들쥐 떼처럼 빠져나갔다. 함구문을 공격했다가 물러나와 성 밖 양각도 쪽에 진을 치고 있던 이일과 김응서가 왜군이 퇴각한 것을 이튿날 아침에 알았을 정도였다. 강물이 얼지 않은 대동강 하구에 있던 김억추도 마찬가지였다.

혹시라도 왜군이 대동강 하구에 배를 대고 있다가 퇴각할지 모르므로 거기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퇴하던 왜군은 명군 장수 이녕과 조승훈이 거느린 복병에게 추격당하여 350명이나 머리를 잘렸고 2명은 사로잡혔다. 조선관군의 장수 이시언도 매복하고 있다가 왜군 중에서 굶주리고 병들어 낙오한 60명의 목을 벴다.

평양성 전투는 조명연합군의 대승이었다. 포탄과 철환, 화살과 칼에 맞아 죽은 왜군의 숫자는 1만여 명이 넘었다. 목이 잘린 수급은 1200여 개, 노획한 말은 2900마리, 무기는 4500기나 되었다. 조선사람 포로 1015명을 구출한 것도 큰 전과였다.

그런데 이후부터 명군의 요구는 왜군의 노략질 못지않게 무도하게 돌변했다. 이여송이 접빈사를 불러 명했다.

"급히 명군의 앞길로 나아가 군량과 말먹이를 마련하고, 강이 나타나면 부교를 만드시오."

이여송 부하인 명군 장수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다. 애유신이 검찰사(檢察使) 김응남과 호조 참판 민여경, 의주목사 황진을 불러 군량미를 빨리 반입하지 않는다며 장형을 가하기까지 했다. 수모를 당한 관원들은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황해 감사 유영경도 명나라 장수들에게 치를 떨었다. 명군이 처음 압록강을 건너왔을 때는 모든 양민들이 길가로 나와 환영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나타나면 산중으로 몸을 피했다. 명군이 지나간 마을에는 소나 돼지, 개들이 사라졌다. 아녀자들은 명군 진중으로 끌려가 몸을 망치기도 했다. 명군의 노략질은 왜군과 진배없었다. <계속>